

“나라 위한 선현들의 뜻 잇자”

죽림정사, 대통령·총리 등 역대 지도자 ‘천도재’ 지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후 현재까지 역대 지도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법회가 5월 29-30일 양일간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에서 봉행했다.

백용성조사유훈실현추진회가 마련한 이번 천도법회에서 환희, 지연, 해력, 상현, 법승 스님 등 후원회 법사단은 역대 정부요인과 지도자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에 이어 인등을 밝히고 호국호법을 기원했다.

천도재에 앞서 도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사회는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역대 지도자들의 뜻을 이어 인류가 다같이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자”고 말했다.

5·31 지방자치단체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번 천도법회는 역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각 부처장 등 행정부 요인과 역대 대법원장, 대법관 등 사법부, 국회의장단, 국회의원 등 입법부 요인들의 영가와 현 국 무위원, 각 부처장,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 의원들의 가족 등 일체 영가를 위한 인등 5000여개를 밝히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박상록 백용성 후원회 사무국장은 “역대 지도자들의 인등을 밝히기 위해 총무처, 행정부, 언론사 등을 방문해 명단을 찾아냈다”며 “나라를 위해 힘쓴 선현들의 뜻을 다 시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백용성후원회는 6월 3일 용성스님 탄신 143주년을 맞아 죽림정사에서 만동관동 법회를 봉행하고, <금강명경> 3만권 을 발간해 전국 사찰과 기관, 신원단체에 무료보급했다.

이준엽 기자



“남도답사 1번지 사찰 위상 세울 터”

무위사 주지 법정 스님 취임식

강진 무위사는 5월 28일 대웅전 앞 뜰에서 주지 법정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대흥사 주지 몽산, 강진 사암연회장 법상 스님 등 각 사암 스님과 황주홍 강진군수, 방철수 강진불교 신도회장, 신도 등 500여명 참석했다.

법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수행기도, 전통문화계승,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이 되어 남도답사 1번지 사찰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몽산 스님은 법에서 “취임식은 포교와 수행을 위해 발원하는 자리이다”며 “무위사가 강진불교의 중심이 되도록 대중에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법정 스님은 1983년 대흥사에서 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법주사 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목포 달성사 주지, 목포불교대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장, 해남 한뜸어린이집 원장을 맡고 있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무여 스님 초청법회·나눔장터

원각사 대웅전 중창 낙성법회

송광사 광주 포교당 원각사(주지 도제)는 대웅전 중창불사를 마치고 6월 11일부터 3일간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원각사는 대웅전 낙성에 앞서 11일 오후 4시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한다.

이어 12일에는 원각사 마당에서 사찰음식전시회와 생활용품, 불구용품을 판매하는 나눔장터를 개설해 수익금을 불우이웃



불자기업 ‘청강월’ 1주년 기념 무각사에서 열린음악회로 잔치

불자기업인 청강월이 창사 1주년을 맞아 사찰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개최해 화제다(사진).

화제의 불지는 민속주를 생산 판매하는 청강월 대표 엄일석씨. 엄씨는 5월 27일 광주 무각사 경내에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콘서트 ‘해탈’을 열었다.

지역 주민 3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음악회에서 엄일석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일하다보니 사업도 급성장하게 됐다”며 “사회에 회향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연에 앞서 광주불교사암연 회장 혜향

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사암, 어린이합창단이 출연해 낙성전야 음악회를 갖는다.

대웅전 낙성식은 13일 오전 11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과 지역 사암 스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한다.

100여년 전, 송광사 광주 포교당으로 개원한 원각사는 각종 신원단체가 활동하며 근세 광주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번에 낙성하는 대웅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 40평 규모로 지난해 1월 상량에 이어 급근 3월 단청불사를 마쳤다.

이준엽 기자

스님도 격려사에서 “불교는 실천하는 종교이다”

“나눔에 인생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불자 연예인 이상백씨의 사회로 펼쳐진 이날 음악회에는 테이, 리아, 코라 등 인기 가수과 송승환 ‘난타’ 팀이 출연해 지역민과 함께 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에 예비상담원 84명 탄생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불교 전문 예비상담원 84명이 탄생했다.

불교상담개발원과 자비신행회는 공동으로 5월 27-28일 양일간 자비신행회 교육장에서 불교상담 기본교육을 마련하고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광주에서 처음 마련된 이번 상담교육은 상담의 기본이론, 상담기법, 불교와 상담, 상담현장 등 기본 강좌 등으로 진행됐다.

자비신행회 김영섭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불교 전문상담원을 배출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하반기에 불교심리상담사 양성을 위해 불교상담아카데미를 개설하며 자비의 전화를 개통해 상담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영조 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법보자비 몽골 간담사 승가대학장(세번째)·암갈랑 간담사 부총무원장(네번째)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송광사

“몽골의 대학생분들은 몽골불교의 희망입니다. 따라서 몽골 대불협(대학생불자협의회)은 사회주의 체제에 맞선 불교를 재건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5월 27일, 몽골 대불협 불교 경시대 회 결선에 앞선 기념식에서 몽골 간담사 부총무원장 초이잡즈 스님은 “몽골 대불협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10명씩의 참가자들이 자웅을 겨뤘다. 몽골 대불협을 지도하고 있는 남정주 교수(몽골 국립 사범대)는 “불교 경시대회는 급근 4회째로 대회가 있기 몇 달전부터 도서관마다 불교관련 서적을 대출하는 경쟁이 시작된다”며 “해마다 참여학생들이 늘고 있어 몽골 불교의 미래를 밝게 한다”고 전했다.

몽골 불교 재건 위해 함께 노력

송광사, 불교경시대회 입상대학생에 장학금 복지시설등기·물서보내기 등 다각도 지원

아까지 않는 한국 송광사 대중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인사말을 했다.

이 자리에는 몽골 간담사와 불교교류 중진방안을 위해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몽골 현지를 방문한 송광사 몽골불교도교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영조, 이하 몽불위) 스님 6명이 함께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격려사에서 “몽골불교를 지원하는 것은 한국 불교를 몽골에 심으려는 것이 아니라 몽골불교문화를 되찾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며 “양국 불교교류와 협력을 통해 불법을 널리 전하는 데 힘쓰자”고 말했다.

이어 송광사 몽불위는 불교 경시대회 결선을 주관하고 대회에 입상한 몽골 대학생 2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광주 중심사 주지 진화 스님도 몽골 대불협 사무실에 컴퓨터를 기증했다.

간담사 불교대학 강당에서 열린 몽골 불교경시대회는 일반 대학생부, 승가대 전문부로 나뉘어 총 350여명이 응시했다.

결선대회는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이준엽 기자

김동수 열사 추모재 열려

광주 민중항쟁 제 26주년을 맞아 前 대불협 광주전남 지부장 김동수 열사 추모재가 5월 27일 열렸다.

조선대 김동수열사 추모탑에서 열린 추모재에는 기념사업회장 이순규,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공동대표 행법 스님, 대동회장 김부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신보라 등 시민단체 회원과 지인, 유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장들은 추모사를 통해 “죽음을 알면서도 희생자들의 시신을 입관하며 염불했던 보살의 화신이었다”며 “열사의 뜻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시인 조원희씨는 추모시를 통해 “평택대추리, 스크린쿼터 등 잔인한 오월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땅의 민중들이 통일과 평화의 새날을 열도록 힘을 달라”고 노래했다.

故 김동수 열사는 5·18광주 민중항쟁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순화했다.

이준엽 기자

대성사 ‘선남선녀산악회’ 결성

육원 대성사(주지 혜철)는 5월 31일 전국에서 참석한 선남선녀 회원 30여명과 함께 서을 관악산을 등반했다.

지방선거를 마치고 참석한 회원들은 만남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악회를 결성, 회장이 방주석씨를 선출했다.

산악회는 앞으로 건전한 만남을 통한 결혼을 이끌어내기 위해 매월 한차례 등산을 할 예정이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한꽃복지센터 독거노인 나들이

광주 한꽃노인복지센터(시설장 김명실)는 5월 26일 광주 동구지역 독거노인을 초청해 ‘백양사 행복 나들이’를 가졌다.

바깥나들이 기회가 적은 독거노인들의 고독감 해소와 노후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나들이에는 독거노인과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복나들이 참가자들은 장성 백양사를 참배하고 담양 대나무 박물관을 견학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 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기초교리집 패도 특별찬정 보급!!

법 요 집

기 초 교 리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여름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상귀의, 신앙입니다, 반야심경, 입정, 청법가, 법문
- 정근: 법원 및 축원, 사찰서원, 산회가,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 15. 사성제, 16. 사성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상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양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패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 02)2004-8219, 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스님만의 특유한 자연건강 비법과 약사여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마음과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난치병 불치병 등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혜광(慧廣)스님을 아십니까?**

KBS, MBC, 연합불교방송 등 방송매체와 35회 이상 언론에 보도된 혜광스님 (필명 李海堂)

성공한 사업가(전직 무역회사 회장, 수출탑 수상), 자연건강 연구가(자연건강 1급 지도사, 자연건강 연구 15년), 소설가, 투병생활 9년, 불가에 귀의(1989년, 1996년 법사계 전법), 외국(티벳, 태국)사원 자연건강 비법 전수, 한국 인물사(대한민국 역사편찬위 발행 1990)수록.

KBS 방영 - 이제는 중생 구제다 -

KBS의 “혜광스님의 자연건강 행복한 삶” 프로(2005.7.10 방영)에 특별 출연하여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중생들에게 새 삶의 희망을 주고자 70대구를 바치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투병생활 장소이자 바닷가 자신의 별장에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신 약사암(藥師庵)을 창건하다

손꼽히는 한려수도 **관광과 방생지**

거제도 바닷가 황토굴에서 새 생명들!

• 몸속에 가득 채워진 독소 (오염된 물, 공기, 중금속 오염, 약품과용, 가공식품)을 천연 황토동굴에서 제거 해야 한다 - 스님 자신이 투병생활에서 얻은 결론이다.

(스님과 친견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산 1-3 약사암 (동부면 면사무소에서 1Km 거리, 면사무소 - 오송리 중간 우측)

전화 : 055)632-2483 / 휴대폰 : 018-591-1322

- 인터넷 검색(혜광스님 관련) http://www.cafe.daum.net/yaksam http://www.cafe.daum.net/Oseongwon http://www.cafe.naver.com/lehaedang E-mail: lom1209@hanmail.net